

시집 『감지당집(坎止堂集)』에 대하여

홍진욱*

- I. 서론
- II. 김정 의 생애와 문학 활동
- III. 시집 『감지당집』의 문헌적 가치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연구된 바 없던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김정의 시집 『감지당집』을 발굴하고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한 것이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김정의 생애와 문학 활동을 살피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김정은 20대 후반에 벼슬살이를 시작한 후 평생토록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한 정치가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명문가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안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김정에게 유일한 시련은 수많은 정적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끊임없이 조정에서 진퇴를 거듭해야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김정의 저술로는 그의 4대손 김중후-김중수 형제가 편찬·간행한 『청풍세고』의 산문만이 유일하게 전해져 왔는데, 해당 작품들에서는 크게 정치가적 면모, 학자적 면모,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시집 『감지당집』의 특징과 그 문헌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로서만 알려져 왔던 김정을 시인으로서 조망할 수 있는 문헌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감지당집』의 제2책인 『화도시』는 1669년 봄, 김정이 잠시 조정을 떠나있던 한 달 남짓의 기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간에 창작되었고, 제1책에 실린 시들의 창작 시기는 비정할 수 없지만 수록 작품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대체로 생애 중년 혹은 만년에 역시 조정에서 떠나있던 시기에 지은 작품들이므로 추정된다. 아울러 편찬자로는 『청풍세고』를 편찬·간행한 김종후-김중수 형제일 가능성이 높고, 시집 『감지당집』은 이들 형제가 절친하게 교유하였던 김이곤-김이복 형제를 거쳐 김이복의 외손자인 이조승에게 전해지고 최종적으로 이조승과 인척 관계였던 김정희가 소유하게 되었다.

수록 작품은 어떤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조망되는 김정의 공적 면모보다는 지극히 소소한 일상에서의 한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요컨대 시집 『감지당집』에는 한평생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유력한 정치가, 학문에 전심하였던 성리학자의 면모보다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모습들과 그 속에서 느낀 감정들이 담박하고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김정, 김종후, 김중수, 이조승, 김정희, 시집 『감지당집』, 『청풍세고』, 17세기 한시, 규장각 집부선본총서

1. 서론

본고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김정(金澄, 1623~1676)이 저술한 시집(詩集) 『감지당집(坎止堂集)』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집 『감지당집』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기탁된 문헌이다.

김정은 당파 간의 갈등이 점차 첨예해져 가던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인물로서 평생토록 조정의 청요직을 두루 지낸 당대를 대표하는 정치 인사일 뿐만 아니라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문하에서 정통 성리학을 계승한 학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김정의 저술로는 그의 부친 김극형(金克亨, 1605~1663)과 아들 김구(金構, 1649~1704) 등 3대(代)의 문집을 합편하여 간행한 『청풍세고(靑風世稿)』에 실린 『감지당집』이 유일하게 전해져

왔는데, 여기에는 정치가로서 또 학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산문만 실려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시 작품만 수록되어 있는 2책 분량의 『감지당집』을 발굴하게 되었기에 이를 학계에 보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김정과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김정이 정치가이자 행정가로서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적으로 접근할 만한 작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제 시집 『감지당집』이 새롭게 발굴된 만큼, 조선 중기 문학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문인으로서 김정을 본격적으로 조명할 전기(轉機)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시집 『감지당집』을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문인으로서의 김정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작업으로 향후 김정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는 것은 물론 조선 중기 문학사의 지형이 좀 더 다채롭고 폭넓게 그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¹⁾

II. 김정의 생애와 문학 활동

김정은 그간 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된 바 없다. 그리하여 김정의 낭남 김구(金構, 1649~1704)를 비롯하여 그의 후손과 주변 문인들이 남긴 기록²⁾ 및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역사 문헌, 『청풍세고』에 실려 있는 문집 『감지당집』 등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김정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시집 『감지당집』을 논의하고 문인으로서 김정의 정체성을 과

1) 본고의 연구 대상인 시집 『감지당집』은 필자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집부조사사업팀의 일원으로서 2018년 11월에 기탁기증서류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당시 필자가 『감지당집』의 기초 조사 및 해제 작성을 담당했다. 이 문집을 학계에 소개하는 데 동의해준 당시 집부조사사업팀 책임연구원 김수진 선생께 감사드린다.

2) 金構, 『觀復齋遺稿』 권2, <先考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府君家狀>, 한국문집총간 속 49, 35~46면; 金栻, 『儉齋集』 권24, <先考觀察使贈領議政府君行錄>, 한국문집총간 속 50, 495~499면; 金翰, 『厚齋集』 권41, <祭再從叔父監司公文>, 한국문집총간 156, 103~104면; 權尙夏, 『寒水齋集』 권25, <觀察使贈領議政金公(澄)神道碑銘(并序)>, 한국문집총간 420, 127~131면; 朴世采, 『南溪集』 권77, <全羅道觀察使金公墓誌銘>, 한국문집총간 141, 32~35면.

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삼고자 한다.

김징의 자는 원회(元會), 호는 감지당(坎止堂)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1623년(인조 1) 12월 18일에 공조 정랑 김극형(金克亨, 1605~1663)과 정호(鄭護)의 따님인 광주 정씨(光州鄭氏, 1604~1631)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아홉 살의 나이에 모친을 여의었다. 약관(弱冠)의 나이부터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³⁾ 23세의 다소 늦은 나이에 과거 준비를 시작하였고,⁴⁾ 과거를 준비하던 중 경릉 참봉(敬陵參奉) 이의길(李義吉)의 따님 함평 이씨(咸平李氏)와 혼인하였다.⁵⁾

이후 28세가 되던 1650년(효종 1) 생원시에 제사명(弟四名)으로 합격한 후 2년 뒤인 1652년(30세)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다. 이듬해인 1653년(31세) 승정원주서 겸 기사관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이후 예조·병조·좌랑 등을 지냈다.

1655년(33세) 사간원 정언(正言)에 제수되었는데 강직한 언론으로 당시 고관들의 미움을 사 평안북도 영변(寧邊)의 어천 찰방(魚川察訪)으로 좌천되었다. 당시 천재지변이 일어나 효종이 신하들에게 구언(求言)을 하자, 이에 부응하여 이해와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봉사(封事)를 지어 올렸다.⁶⁾

1657년(35세) 어천 찰방을 지낼 적에 서장관(書狀官) 권집(權誦)이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재물을 탐한 일에 대해 논핵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권집은 김징이 관의 재물을 사사로이 썼다고 무함하였다. 이에 날낫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주위 문인들 역시 해명해주어 결국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해 11월 죄인에 대한 처리 문제로 갑작스레 청양(靑陽)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가을 풀려났다.

1660년(38세) 겨울 강진 현감(康津縣監)에 제수되었는데, 강진은 당시 부

3) 宋浚吉, 『同春堂集續集』 권12, 『附錄』 7, <문인록>, 한국문집총간 366, 129면, “金澄, 字元會, 號坎止堂, 淸風人. 沙川克亨之子. 立朝謇諫, 先生獎誦曰: ‘國家之寶’. 文科, 官至監司.”; 宋時烈, 『宋子大全隨劄』 권13, 한국문집총간 367, 500면, “金元會: 名澄, 號坎止堂, 沙川克亨之子. 孝廟朝科, 官至監司. 居臺諫, 以剛直自持, 前後彈八十餘家, 以此不悅者衆. 顯廟辛亥, 以完伯, 被貪汚罪, 同春上疏救之曰: “論罪直臣, 非國家之福云.””

4) 김구가 쓴 家狀에는 “年二十三, 始業學子”, 권상하가 쓴 신도비명에는 “廿二始治學子業”이라 되어 있는데, 가장의 기록을 따른다.

5) 혼인 시기는 비정하기 어렵고, 다만 장남 김구가 1649년에 출생하였으므로 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청풍세고』 권2, 『감지당집』, <應旨封事魚川察訪時(丙申)>; <應旨封事(丁酉)>

친 김극형이 현감으로 있던 화순(和順)과 가까웠기에 부임하였다. 당시 정사를 행할 때 송사(訟事)를 분명하게 재결하고 흉년 때 세금을 건감(蠲減)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으므로, 임기가 끝난 후 백성들이 이를 칭송하며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1662년(40세) 겨울 당시 화순 현감(和順縣監)이었던 부친 김극형의 신병이 위중해져 결국 이듬해 2월 세상을 떠났다. 이에 김정은 부친을 광주(廣州)에 장사지내고 3년간 성심으로 시묘살이를 한 후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다.

1666년(44세) 여름에 병조 정랑으로서 왕의 온천(溫泉) 거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정언·장령·헌납에 차례로 제수되었다. 헌납으로 있을 적에 집의 이숙(李勗), 장령 신명규(申命圭) 등 6인과 함께(合陪)를 올려 조정의 여러 대신(大臣)을 논핵하였다.⁷⁾ 뿐만 아니라 현종에게 재해가 이어지는 때에 진연(進宴)을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거나 대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논핵하고 파직을 청하는 등 언론의 직임을 철저하게 행했던바, 매우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 이후 헌납에서 체직된 뒤 가을에는 암행어사로서 북로(北路)의 실정을 탐문한 뒤 자세한 내용을 복명(復命)하였다.

1667년(45세) 4월 헌납 재직 시 조정의 여러 대신을 논핵한 일로 인해 평안북도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가 곧 천재(天災)로 인하여 사면받았다.

이듬해인 1668년(46세) 8월 사간(司諫)에 제수되었을 적에, 당시 중궁의 숙부였던 김좌명(金佐明)이 이조 판서에 제수된 것을 두고 왕실의 외척으로 전형(銓衡)의 직임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체직시켰고,⁹⁾ 전후로 조정의 관원 80여 명을 탄핵하였던바 여기에서도 김정의 강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어, 진달한 계책들이 대부분 수용되는

7) 당시 청나라에서 도망친 사람을 조선에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청의 조정에서 조선의 대신을 처벌하려 하자, 현종이 우의정 許積을 보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결국 허적은 현종의 잘못을 인정하고 청나라에 벌금을 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에 대해 김정이 당시 사신들 및 조정의 대신들이 왕에게 치욕을 안겼으며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청풍세고』 권2, 『감지당집』, <請罷陳奏上使許積副使南龍翼書狀官孟胄瑞啓>; <兩司請遞領議政鄭太和左議政洪命夏啓>).

8) 『청풍세고』 권2, 『감지당집』, <辭司諫院獻納兼論進宴疏(丙午)>; <司憲府請罷益平尉洪得箕東平尉鄭載崙兵曹當該堂上啓(丙午)下同>; <請還收兵曹參判張善澄可資及本職啓>

9) 『청풍세고』 권2, 『감지당집』, <司諫院請遞吏曹判書金佐明啓(戊申)下同>

데다 패초(牌招)를 기다리지 않고도 왕을 만나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정의 대신들을 높은 강도로 탄핵하여 수많은 정적(政敵)을 만들었던바, 이는 이후 여러 차례 곤경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1669년(47세) 3월 동부승지(同副承旨)로서 왕의 온천 거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민희(閔熙)가 한성부 판윤에 특별 제수되자 집의(執義) 권격(權格)이 민희에 대한 자금(資級)을 환수해달라고 청했다가 파직되는 일이 있었다. 이때 김징이 조정의 정식(定式)을 어기고 권격의 파직을 거둬들여 달라는 내용의 계(啓)를 하루에 네 차례나 올려 파직되었다가,¹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용(敍用)되었다.

이해 7월에는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제수되어 모친을 모시고 부임하였다. 당시 김징은 스스로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절약을 강조하며 자신의 방 벽에 “벗에게 주는 물품은 세 종류를 넘어서는 안 되고, 혼인과 상례를 도올 적에는 면포 두 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귀신이 벌할 것”이라는 내용을 써 붙이기도 하였다.¹¹⁾ 그리하여 모친의 수연(壽筵) 역시 흥년을 이유로 몹시 검소하게 치렀는데, 이듬해인 1670년(48세) 봄 헌납 김석주(金錫胄)와 대사간 김우형(金宇亨)에 의해 분에 넘치는 사치를 했다는 내용으로 탄핵당하였다. 아울러 허적(許積) 또한 김징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그를 심문하도록 청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김징이 파직되고 그 후임으로 오시수(吳始壽)가 부임하였는데, 그 역시 김징에게 원한을 지닌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으므로 상소를 올려 김징의 죄를 논하였다. 이에 대해 김징은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¹²⁾ 결국 3년 동안 황해도 배천(白川)에 유배되었고 이후 스스로 조정과의 소식을 철저하게 단절하였다.

1672년(50세)에 해배된 뒤 이듬해인 1673년(51세) 광주(廣州)의 별장으로 돌아와 당(堂) 하나를 마련한 뒤 ‘감지(坎止)’라 이름하였다. 감지는 한나라 가의(賈誼)가 『북조부(鵬鳥賦)』에서 “흐름을 타면 흘러가고, 구덩이를 만나

10) 『청풍세고』 권2, 『감지당집』, <承政院繳還執義權格遞罷之命啓(乙酉)>; <第二>; <第四>.

당시 왕에게 올리는 啓는 하루에 최대 세 차례로 제한되었다.

11) 김구, 앞의 글, “常自書其壁曰: “親舊之需, 無過三種; 昏喪之助, 無過兩端, 此外有犯, 神其殛之.”

12) 『청풍세고』 권3, <答李監司(之翼)年未考>; <再答李監司>

면 멈춘다(乘流則逝, 得坎則止).”라고 한 데 출처를 둔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진퇴(進退)와 출처(出處)를 정한다는 뜻이다. 감지당에 대한 기문(記文)에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김징이 남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먼저 서술한 후,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하늘이 옥성(玉成), 즉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니 더더욱 이치를 궁구하고 거경(居敬)하는 수양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¹³⁾

이후 현종이 서거하고 숙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676년(54세) 2월에야 서용(敍用)하라는 명이 내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5일 향년 54세로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김징은 함평 이씨(咸平李氏)와의 사이에서 모두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김구(金構), 차남은 김유(金樛), 삼남은 김무(金楸)이고, 딸은 윤상명(尹尙明)에게 시집을 갔다. 장남 김구는 형조 판서와 우의정 등을 역임하며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한 인물이고, 차남 김유는 박세채(朴世采)와 송시열 문하에서 학문에 깊은 조예를 보인 학자이자 친수 낭관(纂修郎官)으로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증보 작업에 참여하고,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등을 지낸 현달한 관료이다.

이상의 생애적 고찰을 종합해보면 김징은 20대 후반에 벼슬살이를 시작한 후 평생토록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한 정치가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그가 임금에 대한 충의와 국가의 안위에 위배된다고 생각한 경우 신분과 당파를 가리지 않고 가차 없이 논핵하는 끈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점이다. 명문가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안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김징에게 유일한 시련은 수많은 정적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끊임없이 조정에서 진퇴를 거듭해야 했던 것이다. 재종질인 김간(金幹)이 김징에 대한 제문에서 ‘굽히지 않는 우뚝한 지조와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색(確然不可屈之志, 凜然不可犯之色)’을 지녔다고 한 언급은 그의 인간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상의 생애를 재구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서 가장, 행록, 신도비명, 묘지명 등은 고인의 생전 행적 가운데 추승하고 현양할 만한 상징성을 띠는 사건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로써 고인의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13) 宋時烈, 『宋子大全』 卷143, <坎止齋記>, 한국문집총간 367, 83~84면.

전해질 만한 인물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가문의 위상을 드높인 선조로서 김징의 상(像)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 이로 인한 주관적 서술 및 부정적 사건의 의도적인 배제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모든 서술을 확정적 진실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실제로 김징이 수많은 정적을 만들었던 과정에는 김징의 실수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김징이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의 노비들이 법을 어기고 국경지대에 들어가 밀렵을 하였음을 논핵한 일¹⁴과 강화 경력(江華經歷) 신숭구(申嵩耆)와 유수(留守) 김휘(金徽)를 논죄하며 추고하기를 청한 일¹⁵의 경우는 모두 사실이 아닌 일로 드러나 오히려 김징이 체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징 역시 당파적 입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이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을 체직 시킨 일은 왕의 인척이라는 신분과 관직의 고하에 얽매이지 않은 끈은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파적 이익에 충실했던 면모를 여하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정국에서 서인 가운데 송시열과 송준길을 중심으로 한 산당(山黨)과 김육을 중심으로 한 한당(漢黨)이 극렬하게 대립하였던바, 김육의 아들이었던 김좌명에 대한 논핵에는 당시 정국에서 당파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정치적 역학 관계 역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징이 조정 관료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1668년, 그가 사간(司諫)에 제수된 기사에서 사관은 “김징은 기운이 날카롭고 일 말하기를 좋아하였으나, 이름을 팔려는 행태만 있고 실상 끈고 강직한 풍도는 없었다. 몸에 씻기 어려운 허물을 지니고서 대각에서 활개를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좋아하니, 식자들이 그 부끄러움이 없음을 천하게 여겼다.”¹⁶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였다. 그리고 김징이 김좌명을 체직시킨 기사에서는 “김징을 편드는 자들은 김징의 끈은 명성을 선양하고 식자들은 그가 곧다는 이름을 얻으려는 것을 비난하였다.”¹⁷라고 하였던바, 김징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종실록』 역시 서인이

14) 『현종실록』 7년 12월 18일 기사

15) 『현종실록』 9년 10월 6일 기사

16) 『현종실록』 9년 8월 2일 기사, “澄氣銳喜言事, 然有沽名之態, 實無鯁直之風. 身負難洗之累, 而翱翔乎臺閣, 揚揚焉自喜, 識者賤其無恥.”

17) 『현종실록』 9년 8월 3일 기사, “右澄者, 揚其直聲, 識者譏其沽直.”

실각한 이후 정권을 주도한 남인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인바, 김징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김징을 비난하는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곧음’[直]의 문체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김징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한 특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김징의 저술은 『청풍세고(靑風世稿)』에 실려 전해진 것이 유일했다. 『청풍세고』는 김징과 그의 부친 김극형, 아들 김구 등 삼대의 글을 김징의 4대손인 김종후(金鍾厚)가 합편한 뒤 김종수(金鍾秀, 1728~1799)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1779년(정조 3)에 간행한 것이다.¹⁸⁾ 제1권은 김극형의 『사천집(沙川集)』, 제2~3권은 김징의 『감지당집』, 제4권은 김구의 『관복재집(觀復齋集)』인데, 여기에 실린 『감지당집』의 작품은 모두 산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권에 해당하는 제2권에는 소(疏) 3편, 계(啓) 11편, 하권에 해당하는 제3권에는 서간문 10편, 잡저(雜著) 4편이 실려 있어 도합 28편이다.¹⁹⁾

『감지당집』에는 우선 문체만 보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직 상소 혹은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담아 올린 계(啓),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에 얽혀 이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과 결백을 담은 편지들이 그러하다. 그 다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학자로서의 면모이다. 김징은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인 송준길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며 정통 성리학의 계보를 이은 인물로서,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남긴 글들이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보낸 답장의 별지』(答人別紙(丙戌)是年二十三)는 태극과 음양오행은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을 담은 수학기 시절의 글이고, 아들 김구의 스승인 박세채(朴世采)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에서는 상례(喪禮) 및 위패의 체천(遞遷)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인간적 면모 또한 발견된다. 맏아들 김구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곧 결혼하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혼수를 간략하게 하도록 자상하게 당부하거나 외박이 잦다는 며느리의 편

18) 『靑風世稿』, <靑風世稿序>, “鍾厚, 五代祖沙川遺稿, 昔年妄自刪定, 附以高祖觀察公、曾祖忠憲公兩世零稿, 合爲四編, 家弟鍾秀, 按關西節, 今將付之剖圖.”

19) 『靑風世고』의 작품 목록 및 구체적인 내용은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집해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를 받고 아들을 질책하는 등 첨예한 갈등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던 정치 관료가 아닌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꼼꼼하고 다정하게 챙기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확인된다.

III. 시집 『감지당집』의 문헌적 가치

1. 서지적 특징

시집 『감지당집』은 해군사관학교 기탁도서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에서는 『감지당집』을 집부선본총서(集部善本叢書)로 분류하고 현재 홈페이지에서 간략한 서지사항 및 디지털 원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²⁰⁾ 기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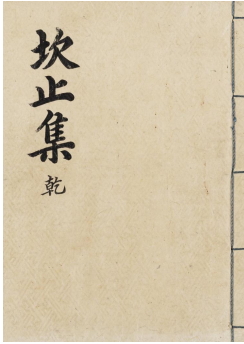
表題: 坎止集
 卷首題: 坎止堂集
 不分卷 2冊, 18.5×13.1cm
 無界, 10行 20字

『감지당집』은 표제 하단에 건곤(乾坤)으로 책을 구분해놓아 이를 통해 2책의 완질본(完帙本)임을 알 수 있다. 본문에는 광곽(匡郭)과 계선(界線)이 없으며²¹⁾ 해서(楷書)로 매우 정연하게 작품이 필사되어 있는데, 필체가 다양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3인 이상이 필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각 책은 첫 장에 목록이 있고 다음 장부터 작품이 이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1책에는 시 32제 184수가 실려 있고,²²⁾ 제2책은 모두 『화도시(和陶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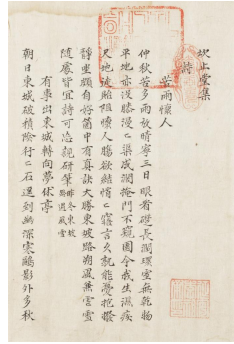
20) 선본 판정의 기준과 선본문집총서 목록은 김수진 외, 『규장각 소장 집부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3): 선본문집총서를 중심으로』,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참조. 논문의 ‘선본문집총서’가 현재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집부선본총서’이며, 기탁도서는 2018년에 집부선본총서가 1차 공개된 이후 조사·업데이트되었다.

21)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지사항의 광곽 항목에 ‘四周單邊. 半葉匡郭 23.3×15.0cm. 有界. 12行24字. 小字雙行’으로 기재된 정보는 잘못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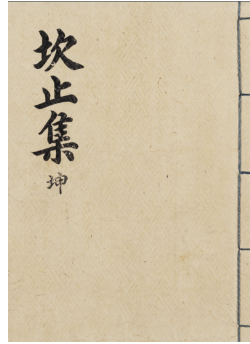
22) 제1책의 목록에는 ‘詩百八十三首’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84수가 실려 있다.



<사진 9>
『坎止堂集』(海士필 1)
제1책 표지



<사진 10>
『坎止堂集』
제1책 본문 1면



<사진 11>
『坎止堂集』
제2책 표지

로 시 45제 126수(四言 4제 20수, 五言 41제 106수), 사(辭) 1편, 부(賦) 2편이 수록되어 있다. 뒤이어 바로 발문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화도시의 저술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발문의 전문이다.

내가 기유년(1669, 현종 10) 봄에 어떤 일로 조정에 편히 있을 수 없어 문을 닫아걸고 손님을 마다한 채 홀로 외로이 지냈는데,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으며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드는 것 외에는 단 한 가지 일도 내 몸을 구속하고 마음을 얽매는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유유자적 한가로이 지내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산수를 찾아다니는 겨울에 서책만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니, 청복(淸福)이 진실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진실로 ‘일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한가로움을 얻었고, 젊은 시절에도 족함을 알았노라(得閒多事外, 知足少年中)’라고 이를 만한 것이리라. 마음 내키는 대로 도연명 문집을 읽어보니, 그가 좋지 못한 때에 뒤늦게 태어나 근심하고 걱정하며 온갖 고난을 겪은 자취는 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의 고아한 정취와 맑은 의표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바가 있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사람을 살려내어 채찍질하고 말을 몰아 비루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 붓을 들어 화운함에 시 126수, 사(辭) 1편, 부(賦) 2편이 되니 그저 적막하고 고요한 정취를 그려냈을 따름이고, 표현이 다소 친근하고 격조가 어긋난 경우는 굳이 따져보지 않았다.²³⁾

23) 김징, 『감지당집』 제2책, “余於己酉歲春, 因事不安于朝, 杜門謝客, 索居塊處, 除却渴飲饑食

해당 인용문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작품의 창작 시기이다. 김정은 기유년 봄에 조정을 떠나 산수를 찾아다니던 시기에 이 작품을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유년은 1669년이다. 김정이 인용문에서 언급한 조정에서 편히 있을 수 없다고 한 일은 이해 3월 한성부 관윤에 민희(閔熙)가 특별 제수된 것에 대해 환수를 청한 집의(執義) 권격(權格)을 항변하는 계(啓)를 네 차례나 올려 파직된 것을 가리킨다. 『승정원일기』를 참조하면, 김정은 3월 22일에 파직되었고 한 달여가 지난 4월 30일에 오위장(五衛將)에 제수되었으며 5월 7일부터는 계속해서 동부승지의 직함으로 좌목(座目)에 기록되어 있는바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로 보건대 제2책의 『화도시』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창작 동기이다. 당시 김정은 조정을 떠나 교외로 거처를 옮긴 뒤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는 주위의 산수를 둘러보고 집 안에서는 도연명의 글을 읽었는데, 그의 마음에 감발되는 바가 있어 도연명의 작품에 화운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 물러나 있던 김정의 처지에서 도연명이 어려움에 처해있었음에도 고아하고 맑은 자취를 보여주었던 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도연명의 모습을 자신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태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의 발문은 제2책의 『화도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제1책의 창작 시기나 저술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제1책에서 창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무신년 12월 27일 밤에 앉아서』(戊申歲十二月二十七日夜坐)가 유일한데, 이때 무신년은 1668년으로 화도시를 짓기 바로 전 해이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1책의 작품들은 화도시를 지은 1669년 이전의 작품들을 모아 엮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의 정회나 인생에 대한 회한의 감정을 읊고 있는 작품이 많아 생애의 만년에 해당되는 시기의 작품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晨起夜眠之外，既無一事之絆于身而嬰于懷者，偃仰自適，行止任便，尋山訪水之暇，惟以簡策怡情，信知清福實不外，是真可謂得閒多事外，知足少年中者耶！隨意閱陶集，其生晚不辰，憂愁艱屯之跡，雖無足取也。其高致清標，有感于衷者，夫安得起斯人於斯世，並轡相驅，滌我鄙吝之懷也？遂援毫和之，得詩爲一百二十六首，辭一篇，賦二篇，聊以寫靜恬沖放之趣而已。至若辭旨之涉於淺俚，調格之近於違舛，有不必與較云爾。”

이 역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감지당집』에는 모두 3과(顆)의 장서인이 각 책의 동일한 위치에 찍혀 있는데, 이를 아래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2>
장서인 1
담여軒主人
3.5×1.8cm



<사진 13>
장서인 2
延安李祖承印
2.0×2.0cm



<사진 14>
장서인 2
子孫世寶
4.0×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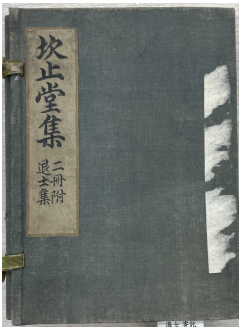
‘담여현주인(淡如軒主人)’과 ‘연안이조승인(延安李祖承印)’은 제1책과 제2책의 본문 첫 장에, ‘자손세보(子孫世寶)’는 제1책과 제2책의 마지막 장에 찍혀 있다.

장서인 1·2는 모두 이조승(李祖承, 1754~1805)의 것이다. 이조승은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순여(順汝), 호는 담여현(淡如軒)으로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후손이며, 부친은 이복(李璞), 모친은 김이복(金履福)의 딸이다. 1781년(정조 5)에 초계문신에 선발되었으며, 이후 순조 대까지 이조 참판, 예조 판서, 형조 판서, 한성부 판윤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지금까지 이조승의 장서인으로는 ‘연안인 이조승 순여장(延安人李祖承順汝章)’이라는 6.58cm 크기의 정방형 대형인장 1과만이 확인되었는데,²⁴⁾ 『감지당집』을 통해 새로운 장서인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조승의 장서인이 찍힌 것으로 보아 시집 『감지당집』의 편찬 시기는 늦어도 1805년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장서인 3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장서인이자 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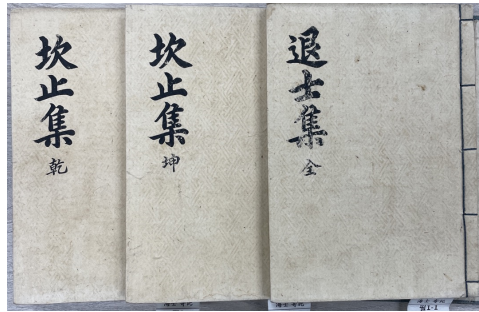
24)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1, 636~638면.

인(名句印)이다. ‘자손 대대로 전해 줄 보배[子孫世寶]’가 바로 서책이라는 뜻에서 새겨진 것이다. 이조승의 장인 김진주(金晉柱)와 김정희의 조부 김이주(金頤柱)가 6촌 관계인바 이조승과 김정희는 먼 인척 관계에 있다. 현재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이상의 장서인을 보았을 때 『감지당집』은 이조승이 소유하고 있다가 김정희에게 전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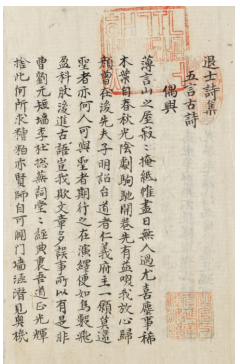
<사진 15>

『坎止堂集』 冊匣



<사진 16>

『坎止堂集』·『退士詩集』(海士필 1-1) 표지



<사진 17>

『退士詩集』 본문 1면



<사진 18>

『退士詩集』

장서인 2, 安人李祖承順汝印,
2.0×2.0cm

한편 『감지당집』의 편찬과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자료로서 『퇴사시집(退士詩集)』이 있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감지당집』은 『퇴사

시집』 1책과 합집(合集) 형태로 묶여 한 책갑(冊匣)에 담겨 있으며, 책갑에는 ‘坎止堂集(二冊附退士集)’이라 되어 있다. 장정 방식이나, 표지, 글씨체, 압인된 장서인 등을 보건대 『감지당집』과 『퇴사시집』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편찬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²⁵⁾ 합집 형태로 편찬된 여타 문헌의 경우를 보았을 때, 『퇴사시집』의 저자는 김징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청풍김씨세보(淸風金氏世譜)』를 비롯하여 청풍 김씨 관련 자료에서 ‘퇴사(退士)’라는 호를 가진 인물을 찾기 어려운바, 『퇴사시집』의 저자를 고증할 수 있다면 두 문헌의 편찬 시기와 편찬자를 비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였을 때, 시집 『감지당집』의 편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편찬자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인물로는 『청풍세고』를 간행한 김징의 4대손 김종후와 김종수가 있다. 이들 형제는 영조 대의 유력한 정치가이자 학식이 깊은 학자로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들이 지녔던 사회적 명망 및 경제적 여유는 자연스럽게 선대의 유문(遺文)을 모아 간행하는 일로 이어진바, 그 대표적 결과물이 바로 『청풍세고』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의정 김구(金構),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등 3대(代) 정승을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청풍 김씨를 명문 세족으로 중흥시킨 데에는 김징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김징을 중심으로 한 삼대의 유문을 엮는 일은 단순히 후대에 글을 남기는 것을 넘어 유력한 정치 가문으로서의 명맥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 행위였으리라 여겨진다.

이 추정을 따른다면 『청풍세고』에는 김징의 학자적, 정치가적 면모를 돋보이게 하는 산문을 선별하여 실고 한시 작품만 별도로 모아 시집 『감지당집』을 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구의 사례가 방증이 될 수 있다. 현재 김구의 문집으로 6책 분량의 『관복재유고(觀復齋遺稿)』가 유일본으로 연세대학교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김종후의 장서인이 압인되어 있는바, 『청풍세고』가 간행될 당시 김종후가 이미 『관복재유고』

25) 『퇴사시집』에는 『감지당집』에 압인된 3과의 장서인 중 1과 3이 동일하게 확인되나, 장서인 2가 있던 자리에는 <사진 10>에서 볼 수 있듯 ‘延安人李祖承順汝印’이라는 이조승의 또 다른 장서인이 찍혀 있는 점만 다르다.

를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복재유고』에 실린 시는 전부 배제되고, 산문 가운데에서도 조정에서 당시의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거나 당쟁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한 소(疏)와 계(啓) 등의 일부 작품만 『청풍세고』에 편입된 것이다. 이로 본다면 김징의 경우 역시 당대의 정치와 학문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서 상징하고자 한 편찬자의 의도가 강하게 개입되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의한 때의 작품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음으로 편찬자와 관련하여 장서인의 소유주인 이조승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조승이 시집 『감지당집』을 소유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선 김징의 후손들이 시집을 편찬한 뒤 이조승에게 전해졌을 가능성과 이조승이 직접 시집을 편찬했을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전자의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여겨진다.

김중후-김중수 형제와 이조승의 친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들의 연결 고리는 이조승의 외조부인 김이복(金履福)으로부터 확 인된다. 김이복과 그의 형 김이곤(金履坤, 1712~1774)은 모두 김중후 형제와 친분 관계가 있었다. 김이복은 김이곤이 세상을 떠나자, 형의 유고를 정리한 뒤 김중후로부터 서문을 받아 1778년에 『봉록집(鳳麓集)』을 간행한 바 있다. 해당 서문을 통해 김중후와 김이곤이 함께 어울려 벗들과 시를 짓고, 또 만나지 못할 때에는 편지를 왕복하여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⁶⁾ 아울러 『봉록집』에는 김이곤이 김중후에게 『중용(中庸)』 구절에 대해 의견을 쓴 편지, 1760년(영조 36) 강서 현령(江西縣令)이 되어 떠나는 김중수를 위해 쓴 서문 등이 있는데,²⁷⁾ 해당 글을 보면 이들 두 형제가 학문적으로 신뢰하며 깊이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시집 『감지당집』은 김중후-김중수 형제가 엮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절친한 벗인 김이곤-김이복 형제를 거쳐 김이복의 외손자인 이

26) 김중후, 『鳳麓集』, <鳳麓集序>, 한국문집총간 속 80, 193~194면, “安東金厚哉, 余晚與游。時厚哉已以能唐詩, 擅名當世, 然每朋輩會集, 坐皆呻吟, 競爲句語, 冀得厚哉一許。(중략) 及余郊居, 厚哉嘗遣書, 以尙書疑義來, 要相反復, 余視之, 往往有獨自契悟處, 於是, 余又知厚哉之勉其所不足, 益進無已也。” 김중후는 이덕무(李德懋)가 자신을 방문하였을 때 『봉록집』에 수록된 시의 운을 따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本庵集』續集 권1, 한국문집총간 238, 19면, <秋不盡四日, 李懋官(德懋)過訪, 拈鳳麓集韻>).

27) 김이곤, 『鳳麓集』 권4, <答金伯高(鍾厚)>; <送金定夫(鍾秀)宰江西序>.

조승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조승과 인척 관계였던 김정희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2. 수록 작품의 경향성

앞 절에서 살펴본 시집 『감지당집』의 서지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수록 작품들의 경향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집 『감지당집』이 처음 소개되는 만큼 전체 작품 목록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詩題 번호	제1책	제2책(『和陶詩』)
1	『苦雨懷人』	『停雲』 4수
2	『有事出東城轉向夢休亭』 2수	『時運』 4수
3	『夜雨戲賦』 4수	『答龐參軍』 6수
4	『偶感』 6수	『勸農』 6수
5	『飯餘試筆』	『形贈影』
6	『靜況』	『影答形』
7	『十年』	『神釋』
8	『小雪』	『九日閑居』
9	『有人送酒』	『歸園田居』 6수
10	『感吟四韻示隣友』	『遊斜川』
11	『次放翁』 15수	『示周續之祖企謝景夷三郎』
12	『和西隣』	『乞食』
13	『對酒』 4수	『怨詩楚調示龐參軍鄧治中』
14	『夜坐』 3수	『答龐參軍』
15	『雪』 2수	『和戴主簿』
16	『獨飲』	『連雨獨飲』
17	『雪朝』 3수	『移居』 2수
18	『冬夜』	『和劉柴桑』
19	『戊申歲十二月二十七日夜坐』	『酬劉柴桑』
20	『除日』	『和郭主簿』 2수
21	『早春』 3수	『送客』

22	『經年』	『與殷晉安別』
23	『年來』	『贈羊長史』
24	『得失』	『和張常侍』
25	『嘲聖沃』	『和胡西曹』
26	『病吟』	『始作鎮軍參軍經曲阿』
27	『雨坐』	『江陵夜行途中』
28	『病起』 2수	『懷古田舍』 2수
29	『拙於』	『乙巳歲三月』
30	『病懶』	『還舊居』
31	『春事』 112수	『乙酉歲九月九日』
32	『次鐘汝』 8수	『庚戌歲九月中於西園穫早稻』
33		『丙辰歲八月中於下潁田舍獲』
34		『飲酒』 20수
35		『止酒』
36		『擬古』 9수
37		『雜詩』 12수
38		『詠貧士』 7수
39		『讀山海經』 13수
40		『問來使』
41		『諸人共遊』
42		『癸卯十二月中作』
43		『庚子歲五月中從都還』 2수
44		『有會而作』
45		『蜡日』
46		『歸去來辭』
47		『感士不遇賦』
48		『閑情賦』
합계	시 32제 184수	시 45제 126수, 사 1편, 부 2편

우선 제1책의 작품 제목만 살펴보다라도 전체적인 작품이 김경의 조정에서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거나 벗들과의 교류 속에서 창작된 것이라기 보다 일상에서의 감정이나 생각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연히 감회가 일어』(偶感), 『밥 먹은 뒤 써 보다』(飯餘試筆), 『밤에 앉아』(夜坐), 『병으

로 신음하며」(病吟)와 같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담은 작품, 「장맛비에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며」(苦雨懷人), 「눈 내리는 아침」(雪朝), 「밤에 앉아서」(夜坐), 「한 해가 지나다」(經年)와 같이 시간의 흐름이나 계절/날씨의 변화에 대한 감회를 읊은 작품, 「서쪽 이웃에 화운하다」(和西隣), 「성옥을 비웃다」(嘲聖沃), 「종녀에 차운하다」(次鐘汝), 「봄날」(春事)과 같이 누군가에게 화운한 작품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시집 『감지당집』에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조망되는 김징의 공적 면모보다는 지극히 소소한 일상에서의 한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유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112수의 연작시 「봄날」이 있다. 이 작품에는 “문을 닫고 깊이 숨어 지내면서 몹시 무료하였는데, 봄날이 점차 완연해지자 성옥이 왔다. 그리하여 바로 운을 맞추어 읊시 몇 수, 절구 몇 수를 마음대로 시를 지어 비린한 생각을 조금 없애고 나의 청명한 운치를 온전하게 하니, 이것은 작은 기쁨이 아니다.”²⁸⁾라는 짧은 서(序)가 있다. 서문에서 언급한 ‘성옥(聖沃)’은 「성옥을 비웃다」(嘲聖沃)라는 작품에도 등장하고 있어 김징과 매우 절친하게 교류한 인물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미상이다.

한편 시의 전체적인 정조는 ‘삶에 대한 회한’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김징은 생평의 대부분을 조정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바, 세상에 대한 염증과 이에 대한 한탄을 그대로 표출한 작품이 많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작품을 보도록 한다.

對人每存恕	남을 대할 때 매번 관대하게 하였고
仕朝當竭忠	조정을 섬기는 일에는 충성을 다했지.
隨處盡五心	어디에서든 내 마음을 다하였으니
何須慕奇功	하필 꼭 뛰어난 공적 바라라?
有事必有始	모든 일에는 반드시 처음이 있는 법
只思善其終	잘 마치기만을 생각할 뿐
是非付一哂	시비는 한 바탕 웃음거리로 부쳐버리고

28) 『감지당집』 제1권, <春事>, “閉門深居, 岑岑無聊, 春事日漸爛漫, 聖沃來, 輒拈韻, 幾律詩, 幾絕句, 隨意賦成, 稍祛鄙者之相, 全我清明之趣, 此非小喜也.”

於世欲啞聾

세상에서 병어리 귀머거리 되려네.²⁹⁾

徒倚闌角墊風巾
 一椀清茶洗俗塵
 老去繁華寧係戀
 年來榮辱不關身
 埋山積雪將殘歲
 透閣寒梅已綻春
 中夜徘徊多漫興
 惟將恬靜保吾真

겨우 난각 모퉁이에 기대어 풍건은 기울어졌는데
 한 잔의 맑은 차로 세속의 먼지 씻어내네.
 늙을수록 화려한 곳 어찌 연연해하리?
 근래의 영욕은 내 몸과는 상관없다네.
 산을 덮을 듯 눈이 쌓여 한 해가 끝나가는데
 문간의 겨울 매화는 벌써 봄을 맞았구나.
 한밤중에 배회하며 흥이 흘러넘치는데
 오로지 차분하게 나의 진정을 지키려네.³⁰⁾

위의 시에서 김징은 세속에서의 시비나 영욕에서 초월하여 자신의 본성을 지키는 것으로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징의 생애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그가 유독 강직한 성품을 지녀 수많은 정적(政敵)을 만들고, 이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정치 생활을 이어 나갔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시에서 시비에 대해 상관치 않고 병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겠다는 언급은 바로 정치적 갈등과 역학 관계 속에서의 경험에 바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일로 내 귀를 어지럽히지 말자(莫把世事煩我耳)”, “근심과 모욕을 견디기 어려워, 이익과 명예를 모두 잊었네(巨耐憂并辱, 都忘利與名)”라는 여타 작품의 구절들에서도 인간관계와 정치 생활에서 그리 평탄치 않은 시간을 보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하여 김징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일들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바로 술과 서책으로 자오(自娛)하는 것이다. 특히 술과 서책은 김징의 한시를 특징짓는 상징성을 지닐 만큼 작품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十年徒奔走
 塵世飽風霜

십 년 동안 한갓 분주히 다니면서
 속세에서 많은 고난 겪었지.

29) 『감지당집』 제1책, <偶感> 제5수.

30) 『감지당집』 제1책, <和西隣>

愛酒頻傾甕	술 사랑하여 자주 술독 기울이고
藏書欲萬床	책상 가득 서책을 간직하려네.
得閒殊不惡	한가하게 되어도 별로 나쁘지 않으니
却老奈無方	늙음 물리치는 데 어찌 방법 있겠나.
吾廬歸來晚	나의 집에 느지막이 돌아와
坐燒一瓣香	앉아서 한 줄기 향불 사르노라. ³¹⁾

日三盂飯足盤蔬	하루 세 그릇 밥에 채소 반찬 충분하니
愛此終年不出廬	이를 사랑하여 해가 다하도록 집을 나가지 않네.
任卷閒舒無我惡	마음대로 한가로이 오가며 내가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床豆多積古奇書	책상에는 옛날의奇書들 많이 쌓아 두었지. ³²⁾

吾家僻矣有誰來	나의 집 궁벽한 곳이니 누가 찾아오겠는가?
門掩西風晝不開	문 닫아걸고 가을바람 부는 낮에도 열지 않네.
獨與麴生團樂地	홀로 술로 단란하게 즐기는 곳
大匏深盞足詩才	큰 바가지에 큰 술잔, 시 재주 부리기 충분하지. ³³⁾

위의 세 작품은 모두 창작 시기를 비정할 수는 없지만 조정에서 물러 나와 도성에서 떨어진 곳에 기거하면서 술과 서책으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 김정은 세속에서의 고난과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이루고자 궁벽진 공간에서 홀로 조용히 담박하게 지내면서 술을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지내는 삶을 노래하였다. 또한 위의 시들 외에도 “훼방이 많아 죄인이 된 몸임을 참으로 알겠거니, 근심을 깨뜨리는 데 술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깨달았네(多毀眞知身作累, 破愁惟覺酒爲醫)”³⁴⁾, “평생의 지기 술만 한 것 없나니, 한가한 날 술 따르며 모자 기울도록 취하네(平生知己無如酒, 暇日相酬醉帽低)”³⁵⁾라는 구절들에서 세상의 득실과 영화를 모두 잊는 하나의 방도로서 술이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감지당집』 제1책, <十年>

32) 『감지당집』 제1책, <次放翁> 제9수.

33) 『감지당집』 제1책, <次放翁> 제10수.

34) 『감지당집』 제1책, <得失>

35) 『감지당집』 제1책, <春事> 제37수.

한편 세 번째 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 김정에게 술은 단순히 기호(嗜好)적 측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술은 김정을 시인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매개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감지당집』에는 <술을 마주하고(對酒)>, <술통 앞에서 몇 수의 시를 읊다(哦到樽前幾首詩)>, <홀로 술 마시며(獨飲)> 등 술을 화제로 삼아 시은 시들이 상당수 등장하는데,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김정에게는 시를 창작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인 동시에 그의 내적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해내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술을 예찬하고 술을 탐닉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요컨대 술 자체의 특성이나 효용 등을 그려내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잊게 하고 또 자연스레 시 창작을 하게 해준다는 상징적 대상으로서 그려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의 한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기교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이하고 담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한평생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유력한 정치가, 학문에 전심하였던 성리학자의 면모가 시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담박한 일상의 삶,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면모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시집 『감지당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³⁶⁾

I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던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김정의 시집 『감지당집』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김정의 저술로는 『청풍세고(靑風世稿)』에 실린 『감지당집』의 산문만이 유일하게 전해져 왔는데, 여기에는 생평을 유력한 정치가로서, 또한 정통 성리학

36) 한편 『감지당집』 제2책은 도연명의 작품에 화운한 '화도시(和陶詩)'인데,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시적 정조나 내용 등이 제1책의 작품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화도시 연구사에 있어서 김정의 화도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토론자의 조언에 따라 추후 별도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자로서 살아온 김징의 면모만을 살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발견한 『감지당집』에는 2책의 분량에 적지 않은 수의 시 작품이 실려 있어 문인으로서 김징을 새로이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감지당집』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지금까지 김징이 문학사에서 전혀 연구된 바 없기에 2장에서는 그의 생애와 문학 활동을 살피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생애적 고찰을 종합해보면 김징은 20대 후반에 벼슬살이를 시작한 후 평생토록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한 정치가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명문가의 일원으로서 비교적 안온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던 김징에게 유일한 시련은 수많은 정적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끊임없이 조정에서 진퇴를 거듭해야 했던 것으로, 매우 강직하고 끈은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풍세고』에 남겨진 산문들에서는 크게 정치가적 면모, 학자적 면모,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집 『감지당집』의 문헌적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감지당집』의 자료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로서만 알려져 왔던 김징을 시인으로서 조망할 수 있는 문헌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간 김징의 저술은 주로 공적인 측면에서만 저술한 산문들만 남겨져 있어 문학사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으나, 시집 『감지당집』이 발굴됨으로써 마침내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감지당집』의 제2책인 『화도시』는 1669년 봄, 김징이 잠시 조정을 떠나 있던 한 달 남짓의 기간에 창작되었고 제1책에 실린 시들의 창작 시기는 비정하기 어렵지만, 수록 작품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대체로 생애 중년 혹은 만년에 조정에서 떠나있던 시기에 지은 작품들이므로 추정된다. 아울러 편찬자로는 『청풍세고』를 편찬·간행한 김종후-김종수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형제는 유력한 정치 가문으로서의 명맥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청풍세고』에는 주로 공적 영역의 산문을 선별하여 실고,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은 별도로 엮어 시집 『감지당집』을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해당 문헌은 김종후-김종수 형제가 절친하

게 교류하였던 김이곤-김이복 형제를 거쳐 김이복의 외손자인 이조승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조승과 인척 관계에 있는 김정희가 소유하게 된 것으로 정리된다.

수록 작품은 대체로 일상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읊거나, 시간의 흐름이나 계절/날씨의 변화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에 화운하는 등 주로 어떤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조망되는 감정의 공적 면모보다는 지극히 소소한 일상에서의 한 개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평생 정치가로서 살면서 느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이나 정적들과의 시비로 인한 염증을 초탈하고자 하는 염원, 실제로 조정을 떠나 궁벽한 곳에 기거하면서 술과 서책으로 자오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술과 서책은 김정을 시인으로서 존재하는 매개물로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김정에게는 시를 창작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인 동시에 그의 내적 정서를 진술하게 표현해내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집 『감지당집』에는 한평생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유력한 정치가, 학문에 전심하였던 성리학자의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담박하게 일상을 보내고, 그 속에서 인간적 면모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權尙夏, 『寒水齋集』, 한국문집총간 420
金榦, 『厚齋集』, 한국문집총간 156
金構, 『觀復齋遺稿』, 한국문집총간 속 49
金克滢·金澄·金構, 『淸風世稿』,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金栻, 『儉齋集』, 한국문집총간 속 50
金履坤, 『鳳麓集』 한국문집총간 속 80
金鍾厚, 『本庵集』, 한국문집총간 238
金澄, 『坎止堂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朴世采, 『南溪集』, 한국문집총간 141
宋浚吉, 『同春堂集 續集』, 한국문집총간 366
宋時烈, 『宋子大全隨筭』, 한국문집총간 36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2. 논문

-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1.
김수진 외, 『규장각 소장 집부 도서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3): 선본문집총서를 중심으로』,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79~160면.

Regarding the Poetry Collection “Gamjidangjip”(坎止堂集)

Hong, Jin-ok

This paper introduces and explores the poetry collection “Gamjidangjip”(坎止堂集) of Kim Jing(金澄), a scholar and literary figure from the mid-Joseon period,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studied in literary history. In Chapter 2, foundational research is conducted to examine Kim Jing’s life and literary activities. Kim Jing’s life can be summarized as that of a politician who held various significant positions throughout his career, handling important state affairs from his late twenties until the end of his life. However, despite leading a relatively peaceful and stable life as a member of the literati, Kim Jing faced the challenge of constant conflicts with numerous opponents, leading to frequent demotions within the court. So far, only the prose writings titled “Cheongpungsego”(清風世稿), which was compiled and published by his great-grandsons, Kim Jong-hu(金鍾厚) and Kim Jong-su(金鍾秀), have been transmitted, providing glimpses into Kim Jing’s political, scholarly, and moral aspects.

The characteristics and literary value of the poetry collection “Gamjidangjip”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Gamjidangjip” acknowledges the significance of providing a literary source that allows us to perceive Kim Jing, known primarily as a scholar and politician during the mid-Joseo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a poet. The second book of “Gamjidangjip,” called “Hwadosi”(和陶詩) was composed during a brief period of approximately one month when Kim Jing was away from the court in the spring of 1669. Whil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precise timeframe of the poems included in the first book, considering the overall content of the collected works, they were likely composed during his middle or late years when he was also away from the court. Furtherm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Kim Jong-hu and Kim Jong-su, who compiled and published “Cheongpungsego,” were the editors of “Gamjidangjip.” The collection was passed down through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ets of brothers: Kim Igon(金履坤) and Kim I-bok(金履復), and

eventually reached Yi Jo-seung(李祖承), a grandson of Kim I-bok, who, in turn, passed it on to Kim Jeong-hui(金正喜), a distant relative of Yi Jo-seung, who eventually became the owner of the collection.

The collected works, characterized by depicting the personal aspects of an individual's daily life rather than the public image of Kim Jing as a prominent figure in any particular group or society, hold significance. In other words, the poetry collection “Gamjidangjip” sheds light on the emotions and mundane aspects experienced by Kim Jing in his personal life and throughout his journey,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his influential political career or his dedication to scholarly pursuits.

Keywords: Kim Jing, Kim Jong-hu, Kim Jong-su, Lee Jo-seung, Kim Jung-hee, Poetry Collection “Gamjidangjip”, “Cheongpungsego”, 17th-century Korean Poetry, Comprehensive Collection of the Royal Library, Kyujanggak

접수일자: 2023. 3. 31.
심사기간: 2023. 4. 1.~2023. 5. 10.
게재결정: 2023. 5. 10.

